

22

순교자 스테반

행 6~7장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 59장 (열어 주소서)

오늘 배울



1. 교회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 집사에 대해 압니다.
2. 그의 순교가 당시 교회의 선교에 미친 영향을 압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행 6:3~5)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 7:59~60)



을 이해하기

초대 교회 당시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집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스테반과 변론할 때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치 못하자 거짓 증인을 세우고 스테반을 ‘성전’과 ‘율법’에 관한 일로 공회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에 대해서 거슬리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신성을 모독한 것으로 돌로 침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테반은 마치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들의 거짓 고소에 대한 반론을 펼쳐 나갔습니다. 먼저 스테반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네 명의 인물이 살았던 중요한 네 시대, 즉 아브라함과 족장시대, 요셉과 애굽 피난시대, 모세와 광야시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은 왕정시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 시기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어 계셨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과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항상 움직이고 활동하셨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약의 예를 들어 현재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스테반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의로운 자들을 배척하여 죽였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무시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임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들은 유대인들은 격분하여 이를 갈며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 스테반 집사는 교회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사울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순교에 뒤따른 교회에 대한 핍박은 도리어 복음이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 7:59~60)

And they stoned Stephen as he was calling on God and saying,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Then he knelt down and cried out with a loud voice, "Lord, do not charge them with this sin." And when he had said this, he fell asleep. (Ac 7:59~60)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스테반은 순교하는 중에 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는지를 정리해 보세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스테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행 14:3)?

2 증거된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비교해 봅시다.

구분	공통점	차이점	결과
행 2:37~41	저희가 이 말을 듣고 ()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 하거늘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 7:54, 57		저를 향하여 ()	큰 소리를 지르며 ()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3 순교 당할 때 스테반의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유사합니다. 예수님과 스테반의 마지막 기도를 각각 적어봅시다.

예수님 (눅 23:34~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스테반 (행 7:59~60)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4 스테반 집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생활 가운데 맺어야 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갈 5:22~23)와 경계해야 할 열다섯 가지 육체의 죄들(갈 5:19~21)을 찾아서 적어봅시다. 각자 특별히 버리고 싶은 죄와 먼저 맺고 싶은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 표시해 봅시다.

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② 육체의 열다섯 가지 죄: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1

행 6:3~4

2

행 6:7

화

행 6:8

↑

행 7:55

↓

행 7:56

↓

행 7:59

↓

행 7:60



빛 가운데 거하려면...

어느 분이 내게 질문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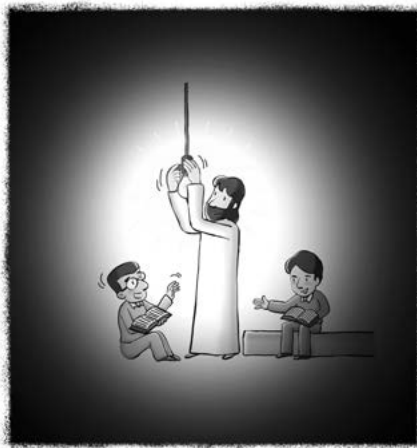
“예수님과 마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또 우리에게서 떠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 질문을 받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캄캄한 방에서 불을 켜 보십시오. 순식간에 방안이 밝아집니다. 그렇다고 어둠이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다시 불을 끄면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마귀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마귀는 그 즉시 사라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빛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충만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7)



질문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20절에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옥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벧전 3:19~20)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벧전 4:6)

이 두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는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로서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으나 예수님이 전도하심으로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셨다는 말씀입니다.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창 6:2). 여기서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어 있고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곧 셋의 후손이 타락하여 세상 사람들과 섞인 것입니다. 그 결과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심판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옥과 영이 다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은 육체이지만 영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옥은 셋의 자손이 물로 심판을 받고 갇혀 있었던 옥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기까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이 거듭났지만 만약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징계를 받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 4장에 기록하셨습니다.